

< 11월의 사양관리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낙농과 제공

◆ 사양관리

가을은 겨울에 접어드는 문턱으로 환절기라고 표현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 사람이나 가축이나 기온과 기후가 바뀌는 환절기에는 건강에 유의해야 한다. 다가올 동절기를 대비하여 축사, 송아지 방, 분만실 등을 수리하고, 여름철 사용하지 않았던 윈치 커텐의 이상 유무를 사전 점검함과 아울러 여름 내내 사용하던 그늘막, 스프링쿨러, 송풍기 등을 철거 또는 점검하여 내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잘 보관하여 둔다.

가을에는 여름철 더위스트레스로 인해 줄었던 사료섭취량이 증가하고 산유량이 늘어나며 체중이 증가하므로 사료급여 수준을 검토하여 충분한 건물섭취량과 균형적인 영양이 공급되도록 한다. 여름 동안 사료섭취량 저하 방지를 위해 에너지 농도 증가와 미량광물질 추가 급여 등으로 배합비를 조절해 주었던 것을 식욕의 회복으로 건물섭취량 증가함에 따라 여름철 급여하던 사료급여수준에 대한 분석, MUN 분석 등을 통하여 최적의 배합비로 조절하여 산유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배합비 조정은 각 농장의 실정에 적합하게 주변의 컨설턴트나 사료회사 직원들의 도움을 받는다. 변경된 배합비로 바꾸어 사료를 변경 급여할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서서히 변경하여 갑작스런 사료변경으로 인한 장애를 예방한다.

바람직한 축사환경 관리를 위해 낮에는 햇볕이 충분히 들어오도록 하고, 항상 통풍 및 환기가 잘 되도록 한다. 우사내 환기가 잘 되지 않으면 암모니아 가스나 이산화탄소 등이 배출되지 않아 우사내 공기가 오염되면서 폐렴이나 세균성 설사가 다발 할 수 있는 만큼 환기에 신경을 써야 한다. 그리고 일교차가 심하면 우사내 저기압이 형성되면 우사의 하층 부분에 가스가 차게 되어 젖소들이 발굽질병 등 여러 가지 질병 발생의 원인이 된다. 또한 이러한 질병발생은 우유 품질의 저하로 이등유의 발생이 많아지므로 우사내의 환풍팬 정비와 더불어 신선한 공기가 유입되도록 하고 환기팬을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여 오염된 공기가 잘 빠져나가도록 해야 한다.

여름철 기온이 높을 때는 원유가 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냉각기 관리에 신경을 쓰다가 오히려 기온이 저하되는 이 시기에는 원유 관리에 소홀한 경향이 있어 원유 냉각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또한 착유기 부품을 점검해 보고 원유 여과망도 점검하여 양질의 원유가 유지 되도록 해야 한다.

옥수수사일리지를 개봉하여 먹일 경우, 공기에 닿는 순간부터 2차 발효가 시작되므로 배출 면을 수직이 되게 하여 공기가 사일리지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최소화 해주어야 한다. 개봉하여 먹인 후 에는 비닐로 잘 덮어 두어 공기의 유입을 최소화해야 부패로 인한 손실을 줄일 수 있다.